

부모가 미취학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하나 · 이지원*

전주기전대학 치위생과 조교수

Factors Influencing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s of Parents to Preschool Children

Ha-Na Choi, Ji-Won Lee†

Dept. of Dental Hygiene, Jeonju Kijeon College, Assistant professor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 of parents to their children and to use them as basic data so that effective oral health education can be carried out for parents and children.

Methods: A total of 105 parents of children attending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located in Jeonju and Bucheon City were surveyed.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 of the parents to their children,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 of the parents, the oral health knowledge of the parent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was written in a self-written method.

Results: As a result of check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s that parents do to their children,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parents'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It was found that the smaller the number of children, the higher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s performed on their children, and the oral health management behaviors performed on their children by parents with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were high.

Conclusions: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variety of programs for effective oral health education in consider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s of parents to their children.

Keywords Number of children, Oral health care behavior, Oral health education, Parents, Preschool children

Received on Nov 08, 2020. Revised on Nov 30, 2020. Accepted on Dec 09, 2020.

* Corresponding Author (E-mail: calli-chn@hanmail.net)

I. 서론

미취학 아동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가하는 시기로 성장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이며, 또한 많은 시간을 부모와 함께하며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 아동은 구강건강관리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때 형성된 습관이 일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스스로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도움이나 지도가 필요하다[2]. 따라서 부모가 갖고 있는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가치관, 태도는 이 시기 아동의 구강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3].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세 아동의 유치우식경험자율은 2000년 83.3%에서 2003년 77.3%, 2006년 67.7%, 2012년 62.2%까지 감소하였지만 2015년 64.4%, 2018

년 68.5%로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만 5세의 우식경험 유치치수도 2003년 2.76개, 2012년 2.79개, 2015년 3.07개, 2018년 3.43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4] 아동의 구강건강관리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구강건강예방책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시기의 아동은 구강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에 의한 지도와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성장기는 부모에 대한 모방이 강한 시기로, 부모의 의식과 행동이 아동의 신념 및 행동에 토대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칫솔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어머니에 의해 칫솔질 지도를 받은 어린이의 구강위생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였으며[5]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아동의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올바른 구강보건행동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 Blinkhorn[6]은

구강보건행동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사회화과정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유치원 아동들이고, 이 시기에 자녀의 구강보건행동은 어머니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Metz와 Richards[7]는 부모의 구강건강행동이 자녀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정[8]은 부모의 구강건강신념, 구강건강행동이 자녀의 칫솔질 횟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류[9]는 어머니의 구강보건 행동이 유아의 구강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전 등[10]은 아동이 사회화과정을 통해 습득하는 여러 가지 행위나 능력에는 부모와 가정환경에서 얻는 경험의 질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아동의 구강건강 관련 행위는 부모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무엇보다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구강건강지식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구강건강행동 및 관리태도는 부모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되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주시와 부천시에 위치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 통계적 검정력 95%로 하여 산정한 결과 총 표본 수가 107명이며,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18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114부의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9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05명(92.1%)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가정통신문 형태로 가정에 보낸 후 자기기입법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강과 조[11]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기존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10문항), 부모의 구강관리행동(12문항), 부모의 구강보건지식(13문항), 일반적 사항(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은 이닦기 지도, 식이조절 지도, 구강관리지도, 혀세정 지도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는 10점~50점으로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대한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0.720, 부모의 구강보건지식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0.860, 부모의 구강관리행동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0.743이었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ver. 21.0 for windows, IBM SPSS Statistic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 부모의 구강관리행동에 따라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구강건강지식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부모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연령은 평균연령 35.5세를 기준으로 35세 이하와 36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을 종속변수로, 부모의 일반적 특성, 구강관리행동, 구강건강지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통계적 유의검정수준은 0.05, 0.01을 기준으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부모의 연령, 학력, 맞벌이 여부, 자녀 구강관리 담당에 따라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

<Table 1> Oral health care behavior to childre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Variables	Categories	N	Mean	t/F	p
Age*	≤35	46	38.85	.589	.557
	≥36	53	38.43		
Education**	≤High school	8	39.88	1.245	.297
	College	15	40.20		
	University	69	38.48		
	≥Master degree	13	38.54		
Dual income*	Yes	71	38.45	-1.391	.167
	No	30	39.53		
Child's oral health care**	Father	3	40.33	.770	.513
	Mother	85	38.74		
	Parents together	14	39.57		
	Other	3	36.67		
Number of children**	1 ^{a,b}	33	40.97	10.599	.000
	2 ^a	65	37.95		
	≥3 ^b	7	37.00		

*by independent-samples t-test, **by ANOVA

^{abc} The same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test.

<Table 2> Differences in oral health knowledg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Variables	Categories	N	Mean	t/F	p
Age*	≤35	46	9.98	-.196	.845
	≥36	53	10.06		
Education**	≤High school	8	9.37	1.194	.316
	College	15	9.60		
	University	69	10.27		
	≥Master degree	13	9.54		
Dual income*	Yes	71	10.23	1.304	.195
	No	30	9.67		
Child's oral health care**	Father	3	11.33	2.066	.109
	Mother	85	10.01		
	Parents together	14	10.28		
	Other	3	7.67		
Number of children**	1 ^{a,b}	33	10.21	2.625	.077
	2 ^a	65	10.09		
	≥3 ^b	7	8.43		

*by independent-samples t-test, **by ANOVA

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수가 1명일 경우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40.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은 37.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 < 0.01$).

2.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지식의 차이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지식 차이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맞벌이 여부, 자녀의 구강건강관리 담당, 자녀 수에 따른 부모의 구강건강지식의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3. 부모의 구강관리행동에 따른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

부모의 구강관리행동에 따른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부모의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와 스케일링 경험 유무, 보조구강용품 사용 여부에 따라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가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없는 부모 보다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더 높으며, 스케

일링 경험이 있는 부모가 스케일링 경험이 없는 부모 보다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보조구강용품을 사용하는 부모가 보조구강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부모에 비하여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4.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Table 3> Oral health care behavior to children according to the parent's oral care behavior

Variables	Categories	N	Mean	t/F	p
Recent dental visit*	Yes	74	39.16	1.457	.148
	No	31	38.06		
Regular oral examination*	Yes	50	39.26	.969	.335
	No	53	38.58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49	39.84	2.790	.006
	No	56	37.96		
Experience of scaling*	Yes	100	38.99	1.994	.049
	No	5	35.80		
Frequency of brushing**	≤2	13	37.00	2.044	.135
	3	66	39.12		
	≥4	26	39.04		
Use of oral care products*	Yes	81	39.42	3.229	.002
	No	24	36.87		

*by independent-samples t-test, **by ANOVA

<Table 4> Factors influencing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s of parents to their children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s	6.051	1.000		6.052	.000
Age	-.164	.114	-.146	-1.442	.153
Education	-.093	.090	-.111	-1.033	.305
Dual income	.158	.129	.128	1.226	.224
Child's oral health care	-.099	.144	-.072	-.689	.493
Number of children	-.368	.107	-.372	-3.456	.001
Recent dental visit	-.139	.124	-.115	-1.118	.267
Regular oral examination	-.098	.116	-.087	-.844	.401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282	.125	-.250	-2.249	.027
Experience of scaling	-.295	.286	-.117	-1.032	.305
Frequency of brushing	.041	.094	.044	.435	.665
Use of oral care products	.023	.158	.018	.147	.883
Parents' oral health knowledge	-.004	.031	-.015	-.137	.891

R=.498, R²=.248, Adj. R²=.141
F=2.311, p=0.013

결정계수(R²)는 0.248로 이 모형을 24.8% 설명하고 있으며, 분산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F=2.311, p<0.05)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입력방식으로 부모의 일반적 특성(연령, 학력, 맞벌이 여부, 자녀의 구강건강관리담당, 자녀 수), 지난 1년간 치과방문 여부, 정기구강검진 여부,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 스케일링 경험 유무, 칫솔질 횟수, 구강용품사용 여부, 부모의 구강건강지식 변수를 모형에 투입한 결과 자녀 수와 부모의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자녀 수가 적을수록,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찰

치아우식증은 아동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구강질환으로 아동들이 당분이 함유된 음식성 식품을 좋아하여 많이 섭취하는 반면 구강관리를 스스로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된다[12]. 이처럼 스스로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며 돌봐주는 부모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13]. 부모의 행동이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구강보건과 관련된 행태가 매우 중요하며, 부모가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올바르게 지도해야 한다[14]. 본 연구는 이렇듯 자녀의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자녀에게 구강건강관리를 수행할 경우, 과연 어떠한 요인에 따라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자녀의 수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의 수가 한 명인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가장 높았다. 이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 다자녀 부모보다 더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자녀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송[15]의 연구결과와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관심과 시간을 제공하여 구강건강관리행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두 명 이상일 경우는 부모의 관심과 시간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각 자녀에게 확산되어 집중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한 명인 부모가 다자녀를 둔 부모보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대한 지도나 칫솔질 후 구강을 확인하는 등의 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부모의 구강관리행동 가운데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라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차이가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가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없는 부모 보다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구강건강행동이 자녀의 올바른 구강건강행동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한 최[16]의 연구를 볼 때,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자신의 구강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구강보건행동도 양호하게 나타나며[16][17], 어머니의 구강건강관리행동이 양호할수록 자녀의 구강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자녀가 더 양호한 구강건강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16][18][19]와 같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스케일링 경험이 있는 부모가 스케일링 경험이 없는 부모 보다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보조구강용품을 사용하는 부모가 사용하지 않는 부모에 비하여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en[20]의 연구에서 치실의 사용 여부는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부모가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함으로써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구강건강관리 뿐 아니라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고졸 이하일 경우 영유아 구강건강에 대한 태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조[21]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이는 구강건강과 관련된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중요하다는 고 등[22]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 역시 부모의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와 같은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자녀 수와 부모의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녀의 구강건강을 위한 습관이 올바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구강건강관리행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녀의 수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르게 적절한 구강건강관리행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구강건강관리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가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여 자녀에게 올바른 구강건강관리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기에 연구 대상이 대표성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에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지역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부모와 아동의 구강건강 지식 및 행태 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그 관련성 등을 확인하는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부모가 자녀의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선행연구들과 함께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주시와 부천시에 위치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부모 총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얻었다.

1.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부모의 구강관리행동에 따른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가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없는 부모 보다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더 높으며, 스케일링 경험이 있는 부모가 스케일링 경험이 없는 부모보다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또한 보조구강용품 사용하는 부모가 사용하지 않는 부모 보다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3.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자녀 수와 부모의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자녀 수가 적을수록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높으며,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Nicki LP, Barbara HM: Pediatric nursing: Caring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2nd ed. Clifton Park, New York: Thomson Learning Inc., 2007.
2. Park HS, Kim JS: A survey of parent's oral health perception for the oral health promotion of the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7(3):135-139, 2007.
3. Kim YS, Seok EJ: Parents'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n their kindergartner.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ygienic Science* 10(2):27-36, 2004.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117_11751
5. Seo SY: The influence of parents' knowledge for oral hygiene or health on the oral health of their infant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2011.
6. Blinkhorn AS: Dental preventive advice for pregnant and nursing mothers sociological implications.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31(10):14-22, 1981.
7. Metz AS, Richards LG: Children's preventive dental visits: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Dentists* 34(4):204-212, 1967.
8. Jung EK: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oral health behaviour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3(1):58-63, 2015.
9. Ryu K: Effect of mothers' oral health behaviour and knowledge on dental caries in their pre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04.
10. Jun BH, Choi YS, Cho YS: The effects of parent's oral care on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33(2):211-226, 2009.
11. Kang YM, Cho YS: Impact of mother's oral health literacy on preschool children's oral health status and behavior.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6(1):26-36, 2016. DOI: <https://doi.org/10.17135/jdhs.2016.16.1.26>

12. Ryu K, Jeong SH, Kim JY, Choi YH, Song KB: Effect of mothers' oral health behaviour and knowledge on dental caries in thei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28(1):105-115, 2004.
13. Kim YH: (The) Influence of the cognizance of childcare teachers about dental care on oral health of infants.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Incheon, 2006.
14. Ripa LW, Barenie JT: Management of dental behavior in children. *Pediatrics*, PSG Publishing Company, pp.15-26, 1979.
15. Song HK: A study on their child rearing attitudes of the only child's mothers and two or multiple children's mothers.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04.
16. Choi SS: Relation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of Mother and a Oral Health Condition of Children.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5(4):245-250, 2005.
17. Jung MH, Jun SH: A child oral care state according to mother's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selected preschool in Dae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0(6):965-972, 2010.
18. Vann WF, Jr, Lee JY, Baker AD, Divaris K: Oral health literacy among female caregiver: Impact on the oral health outcomes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Dental Research* 89(12):1395-1400, 2010.
19. Ju HJ: Effects of mothers' oral Health literacy on oral health management of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Iksan, 2014.
20. Chen MS: Children's preventive dental behavior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socioeconomic status, health beliefs and dental behaviors. *ASDC Journal of Dentistry for Children* 53(2):105-109, 1986.
21. Cho HR: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infant oral health, and related health behavior among par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3):196-204, 2014.
DOI: <http://dx.doi.org/10.4094/chnr.2014.20.3.196>
22. Go BK, Kang HS, Lee MK, Park HY, Kim HJ: A study on the changes in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of some middle school students by experinces in oral health education in Busa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7(3):29-36, 2019.
DOI: <https://doi.org/10.33615/jkohs.2019.7.3.29>